우리의 불교는 행복하다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해마다 봄꽃과 함께 펼쳐지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올해는 특히 큰 인기를 모았다. 소위 MZ세대들의 공간인 'X'에서 X하고 Hip한 불교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봄을 즐기듯 불교를 즐겼다.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참으로 싱그럽고 새로운 모습의 태동처럼 느껴져 행복함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불교는 언제나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나 출가라는 고정관념과 산사에서 지내는 모습으로 인해 사회와 동떨어진 출세간의 모습이 그동안 불교를 올드하고 정체된 종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6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단 한순간도 사회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래로 45년간 항상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하여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올해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온 환지본처로서의 불교로 나타난 것이다.

중생이 있는 모든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곳에 불법이 있다는 가르침과 같이 가상의 공간인 'X(트위터)'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서 그들과 공존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그 자체로 수행이라는 말처럼, 박람회에서 EDM 파티로 법석을 열고 그 속에서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 계시니
X 같은 가상공간도 부처님 법계 존재
우리의 불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다

세대와 출재가를 넘어 모두가 관세음보살과 극락왕생을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다양한 굿즈들도 사람들에게 불교를 보다 가깝고 즐거운 종교로 다가서게 해주었다. 한문 경전과 어려운 말이 아닌 인형과 캐릭터, 티셔츠 등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불교를 고민없이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이 시대의 다양한 트렌드가 불교 안에 멋지게 펼쳐져 있는 것을 체험하고 함께하게 해주었다.

빠른 변화의 시대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교의 멋이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알려져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세대로 전달된 불교는 그저 즐기는 것만이 아닌 그를 통해 자신을 살피고 수행으로 나아가는 선지식의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 놀고 즐기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망함과 일상으로의 복귀에서 그 시간 동안 즐기며 얻어진 것들이 단순한 재미가 아닌 행복함으로 남아 삶의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 보다 쉽게 이해되고 친숙하며 즐길 수 있는 불교의 교리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X'의 법계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이어가고 그들과 공존할지 불교의 모든 이들이 고민하고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 시대의 불교가 무엇인지 이번 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막연한 깨달음과 진지한 고행이 아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미소 가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야단법석을 열고, 큰 소리로 불보살의 명호를 외치며 즐길 수 있는 불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교이다. 불교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교가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참다운 깨달음일지도 모르겠다.

절 달력에 환경지침 담아보면 어떨까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모진질병 돌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되어 구제하되
여러중생 이익한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이 발원문을 처음 들었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아이들 방학 기간이어서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긴 나는 새벽 예불에 참석할 수 있었다. 순전히 궁금증에서 참석한 첫 새벽예불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했다. 스님 한 분이 종이를 펼쳐 들고 읽어내려가는 한 구절 한 구절에 빨려들 듯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눈이 뜨거워졌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산혜원선사 발원문'이었다.

그때까지 절에 가면 불상 앞에 절을 하며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온통 빌기만 했는데 이 발원문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모진 질병이 돌적엔 스스로 약풀이 되어 치료하겠다는 서원, 흉년 드는 세상에 쌀이 되어 구제하겠다며 그것도 모자라 여러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한 가지라도 놓칠 수 없다는 이 발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고하게 쳐놓은 '나'라는 테두리를 해체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관심사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 발원문이었다.

이런 고무적인 경험 이후 연구소를 차려 불교계에 이런저런 제안을 했었다. 그 무엇보다 바꾸고 싶었던 것은 절 달력이었다. 달마다 돌아오는

이안선사 발원문에 가슴이 뜨거워져
재일에 할 수 있는 환경지침 제안해
이루지는 못했지만, 항상 발원해본다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이 있다. 달마다 초하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름에는 한 시간이라도 전등을 끄고 환한 달빛을 켜보자는 제안, 지장재일에는 육식 대신 채식을, 관음재일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절 달력에 적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이후 이런 마음을 담아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대파 한 단 값이 선거를 좌우할 정도로 물가 폭등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물가가 높은 데에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해 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무척 나빴다. 코로나라는 모진 질병을 겪으며 약풀이 되겠다던 이산 선사의 발원이 떠올랐다. 흉년 드는 세상에 쌀이 되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환경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쌀이 될 수 있을까?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2020년 지구의 날에 달라이라마 스님은 "종종 달과 별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가볍게 얘기하지만 누구라도 그곳에 살게 된다면 불행할 것"이라며 "우리 행성은 살기에 매우 안온한 곳이고, 지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지구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며 해양산성화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나 자각하며 살고 있을까?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을 다시 꺼내 읽으며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대대손손 안온하게 살 방법을 생각해본다. 날짜마다 간절한 발원과 실천이 담긴 절 달력을 만들어 함께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社 說

MZ세대 눈높이 맞춘 연등회 기대

'불교, 또 자기들끼리 재미있는 것 하네.' 지난해 열린 연등회 연등놀이에서 진행된 개그맨 윤성호 씨의 EDM 파티를 두고 한 말이다. 엄숙하고 조용할 것 같은 불교행사에 EDM 공연을 하며 '부처핸썸'을 외치는 모습이 일반인들에게는 즐겁게 다가온 것 같다.

이런 낯설음이 주는 매력은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제대로 발휘됐다. SNS 입소문 타고 행사장은 MZ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이상 입장객이 늘었다고 한다. 윤성호 씨가 분한 '뉴진 스님'의 EDM파티,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아이돌 그룹 하이키의 담마토크, AI붓다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과 '자빠진 쥐' 등 독특한 굿즈들은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이 같은 불교문화 열풍을 연등회가 이어나갈 전망이다. 실제, 올해 연등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동국대는 건학위원회의 주도로 재학생 2000명을 참여하는 대규모 행렬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군종특별교구는 군승들과 군종병들이 호국의 의지를 담아 등을 들고 참여할 예정이다. 전통문화마당에는 청년MZ마당이 열린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불교박람회 인기프로그램을 섭외 중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법을 시대와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셨다.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법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MZ세대에 맞는 '재밌는 연등회'를 기대한다.

제22대 국회, 정신건강 정책에 힘쓰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났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제21대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을 이어가게 됐다.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불자 의원들은 36명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정각회가 구성돼야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기존 정각회원들과 미디어에 노출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36명 안팎으로 불자의원들이 국회 입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정각회 여야의원 48명 30명이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이중에 24명이 당선됐다. 공천 이후 당선율를 보면 77%에 이른다.

그래서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불자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불교계와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꾼들이다. 그렇기에 거는 기대도 크다. 총선 당시 조계종은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특히 자료집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꾸준히 강조해온 선명상 보급에 대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현재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명상체험 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사찰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명상의 대중화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선명상 보급은 다만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다. 불교계의 국민 정신건강 정책에 제22대 국회가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